

## 언약의 전달자(에스겔37:4-5)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을 당시 에스겔이 그 밭 강가에서 사로잡혔을 때에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겔1:1-3), 에스겔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붙잡혀 언약 전달자로, 전도자로 평생을 헌신하다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언약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언약전달자로 평생을 헌신했던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110:3절에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권능에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전도회 헌신예배와 새은혜 전도캠프를 진행하면서 에스겔과 같은 언약전달자로 즐거이 헌신하게 되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해 봅니다.

### 1. 언약의 전달자 에스겔

=> 지금 불신현장에 생명의 복음(언약)을 전달하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 언약 전달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것, 부질없는 것, 자신의 문제만 골몰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1) 위급한 현장

① 들짐승의 밥(겔34:5-6),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5) 내 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멧부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6)

\* 지금 위급한 현장에는 목자가 없고,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 교사,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 들짐승의 밥이란? 사탄, 이단, 세상문화(게임, 알콜, 카드, 마약, 자살, 폭력 사이트, 도박, 음란) 등 수많은 흑암문화들이 우리 후대들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 이런 현장에 전도자들이 자리 비우고, 부질없는 것에 정력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② 마른 뼈(겔37:1-2, 1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1)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2)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11)

③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동료, 대상자들이 생명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시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을 송장처럼 보였습니다.

\* 지금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나라, 세계를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송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생명의 복음만 없기에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 (2) 시급한 일(언약전달)

\* 벧전3: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평상시 구원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 ① 떡고(겔2:8-10, 겔3:1-3)

\* 겔2:8-10,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8) 내가 보니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9)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10)

\* 겔3:1-3,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1)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2)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3)

② 전달하고(겔37:4-10),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말씀대로 대언할 때에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셔서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니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③ 살아나리라(겔37:7-10)

## 2. 기도제목(언약전달 이전에)

### (1) 마귀결박(겔28:13-19)

\* 하늘에서 아름답게 지음 받은 찬양하는 천사가 교만하여 지상으로 쫓겨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인간들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한마디로 영적인 유괴범, 언약 방해꾼, 말씀 소매치기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까지 왔는데 복음의 말씀을 못 듣도록 이모저모로 속입니다.

① 말씀 못 듣게(고후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② 들어도 즉시 빼앗아감(막4:15),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③ 듣고, 시험, 평가, 불신앙(요6:60-61),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 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 (2) 마음의 문(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① 겔11: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 겔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 눅24: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 행16:14,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② 언약잡고 기도하라!

\* 예배 전에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결박을 하십시오. 마귀는 영적인 기생충입니다. 그러기에 지속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 결론) 나의 앞 주자 => 나에게 복음 전달했듯이

(1) 살아나리라!(겔37:10)

(2) 되살아나리라!(겔47:9)

(3)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겔47:9)